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역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이재욱 사무총장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올해는 봄부터 시작하여 거의 일 년 내내 예년과 다른 기상 변화가 이어졌던 해였던 것 같다. 이렇게 날씨가 변화무쌍하면 사람들도 적응하기 어렵지만 다른 생물들도 적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봄부터 딸기나 참외 등이 이 변화에 적응을 못해 생산량이 줄고 가격이 폭등하더니 특히 백년만에 최고로 더웠다는 여름 무더위는 가을 채소에 영향을 줘서 채소 값을 유래 없이 올려놓았고 배추 값은 사상 최고 값을 경신하면서 ‘금 배추’라는 소리가 나왔다. 상황이 이러해지다보니 대통령은 배추 값이 비싸니 ‘양 배추로 김치를 담가 먹는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배추 값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배추를 긴급 수입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 할인점들은 배추를 산지에서 구입하여 싸게 판다고 소비자들을 줄 세워서 두, 세 포기씩 안기며 언론플레이를 하였다.

지난해만 해도 배추가 과잉 생산되어 밭에서

갈아엎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1년 만에 배추가 모자라 온 나라가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국내의 전문가들을 보강하여 농업관측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sup>1)</sup>.

그런데 농산물 특히 채소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농업관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인가? 아무리 농업관측을 잘한다 하더라도 극심한 기후 변화를 인간의 힘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농지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농촌에 후계 세대가 없어 농민 수는 줄어들고 남아 있던 젊은 농민마저 농업을 포기하는 상황이라면 농업관측 기능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대책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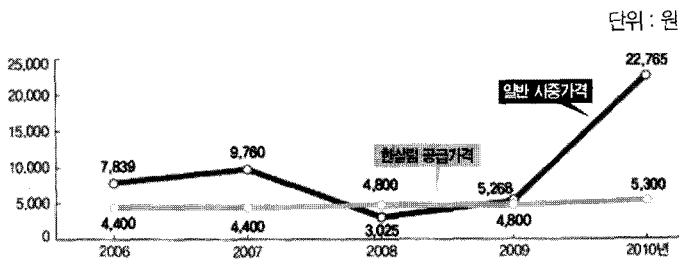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나오거나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커지면 어김없이 생협을 주목하게

1) 한겨레, 2010.10.25

되었다. 생협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다던가 생협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은 가격이 안정되어 시장의 배추값이 올라도 생협의 배추값은 큰 변화 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소개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기적 처방 혹은 반쪽 소개로 생협이 대안인 것처럼 그려질 때 생협은 당황스러워진다. 왜냐하면 생협은 우리 사회의 먹을거리 문제가 불안해 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농업 소망서'나 '구원투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1 연도별 배추가격(10kg), 일반시중가격과 한 살림생협 가격추이



자료 : 한겨레.

※ 일반 시중가격은 상(2)등급 배추를 기준으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9월 한 달 동안 거래된 평균가를, 한 살림 공급가격은 친환경 유기농배추의 소비자 약정가를 말함

생협은 생활협동조합의 준말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그 출자금으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여 운영을 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생협은 태동 당시 우리나라의 농업을 살리고 화학비료와 농약에 오염된 땅과 물과 농산물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여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리고 농민도 살리고 더불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도 함께 살려내자는 뜻을 세우고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도되는 생협의 유기농산물은 시장경제의 체계에 편입되지 말고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사전에 소비규모를 예측하여 농민들과 생산량을 정하고 그 농산물을 책임 소비하는 계약을 하고 생산을 한다. 또 생산자는 내가 생산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

지를 알고 그 소비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농사를 짓는다.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농산물이 어디에 있는 누가 생산한 것인지 알고 그 얼굴을 떠올리면서 식사를 한다. 이것이 생협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면대면(面對面) 관계에 의해 생산과 소비의 신뢰를 형성하여가는 과정이고 지속성을 유지하는 운동이다.

물론 생협이 초기에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서로 간에 합의와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나 농산물이 생산되는 데에는 기후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소비자 조합원들도 생협을 꾸준히 이용해야 하는데 생활재<sup>2)</sup>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시장으로 발길을

2) 생협에서는 공동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소비재라고 하지 않고 생활재라고 한다. 단순 소비를 지향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재화라는 의미로 생활재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돌려서 소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일반 농산물이나 수입농산물에서 오염이나 과다한 농약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생기면 생협을 찾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런 어려움은 생협이 성장기에 들어선 지금도 나타나는 문제이고 계약을 통한 계획생산을 하더라도 농업이 여러 변수에 의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소비자들도 충분히 교육되지 않은 채 조합에 많이 가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책임에 대한 문제도 상존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생협은 해마다 조합이나 연합회가 주최하여 1년 중 5~6차례 생산지를 방문한다. 생산지를 단순 방문하거나 관광 혹은 휴식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노동력이 부족할 때 농가 일손 돕기를 하러 가고 농촌의 어려움이나 농사의 노고를 느끼기 위한 체험 행사 그리고 생산자

그림2 생산지를 방문한 소비자 조합원들



와 소비자가 어울려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단오 잔치와 추수제 등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소비자를 알아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노고를 체험<sup>3)</sup>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쌓아가는 신뢰와 책임감이 생협을 형성하고 성장시켜가는 밑거름이다.

생협의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서서 상생과 호혜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생협의 생활재라는 것은 이렇게 신뢰와 책임감을 기반으로 하여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신뢰와 책임감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자들 역시 계약생산 이상으로 어떤 요행수나 행운을 기대하고 더 많이 심지도 않는다. 그리고 생협의 생산자들 역시 이번<sup>4)</sup>과 같이 기상 변화와 같은 변수에 똑같이 노출된다. 일반농산물이 기상이변에 의해 생산차질을 빚게 되면 생협의 농산물도 거의 같은 피해를 입어서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줄게 된다.

그래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떠오르고 생협이 우리 사회 먹을거리 문제의 대안인 것처럼 부각이 되면 생협은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먹을거리 문제에서 안전해지지도, 자유로워지지도 않는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미래 우리 다음세대에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확인되지 않았고 미국산 쇠고기라든가 가축에 대한 대규모 전염성

3) 우리나라 소비자·생산자 교류 프로그램으로 농소정(도농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도농교류협력사업은 주로 소비자들이 생산지를 방문하여 체험이나 일손 돕기를 할 때 차편이나 식비 등을 지원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이 사업에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였고 생협도 참여를 하였다. 생협은 이 사업에 대한 보고서 평가에서 늘 최우수 사업을 시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2008년 정부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을 들여온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특히 뼈나 내장은 광우병 위험이 더 크므로 수입을 반대하여 대규모 촛불시위를 하였다. 그 때 우리 사회 먹을거리 안전성의 파수꾼인 생협도 이름을 걸고 참여하였고 이 때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생협은 도농교류사업에서 제외되었다.

4) 물론 이번과 같이 배추나 채소값이 금값이 된 데는 기상이변만이 아니라 유통구조의 문제와 4대강 개발사업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이 글에서는 논점을 돌리기 위해 기상이변을 중심으로 다뤘다.

질환이나 멜라민 파동 등이 나타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후속기사는 생협이 대안이거나 생협이 안전지대인 양 당연한 순서로 소개된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것처럼 생협이 이런 문제가 예기치 않게 드러날 때를 대비해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 아니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위의 생협에 대한 기사에 이은 후속 기사로서 생협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생협에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여 농업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데 동참하자는 기사를 실어주는 언론은 거의 없다.

생협이 우리 농업을 살리고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농산물로부터 오는 국민경제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생협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지속성을 준비하며 농사짓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겠다는 사람들도 좀 더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다.

‘유통단계의 복잡, 유통비용(또는 유통마진)의 과다 및 시장구조 불안정으로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나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지나치게 낮다’라는 진단이 있다. 그리고 ‘농어민을 조직화하고 생산, 출하, 가공판매 사업의 많은 부분

그림3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울리는 추수제



을 생산자조직이 맡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유통상 부가가치를 농어민에게 환원할 것’을 대책으로 내 놓았다. 이것은 이번 가을의 배추 파동을 겪으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앞의 진단은 1995년 1월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뒤의 대책은 1994년 12월 농림수산부가 내놓은 것이다.<sup>5)</sup>

이미 15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 대책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요원하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발상도 해볼직 하지 않은가? 국민농업이란 관점에서 보면 농민과 소비자가 서로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신뢰와 책임 속에 배려와 호혜의 경제를 이루어내며 안전한 먹을거리, 안심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생협, 혹은 생협적 방식을 대안, 혹은 대책으로 세워볼만한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것도 때가 있어서 촛불집회 단체 취급하듯이 하면 생협은 스스로 성장 발전할 것이고 정부의 공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이 나라 농업을 지키고 살리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입니다.

- ◆ 순간적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리 농업을 살리고 나의 식탁의 안전성과 농가 및 소비자의 계획적인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 ◆ 생협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면대면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와 호혜의 경제를 지속시켜 갈 것이다.㉟

5) 한겨레, 2010.10.25에서 재인용